

여자축구대표팀, 중국과 0-0 무승부



홍예지의 헤딩 슛 10일 오후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동아시아컵 여자축구대회 한국과 중국의 경기. 한국의 홍예지가 헤딩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 EAFF E-1 챔피언십 여자부 1차전 '콜린 벨' 새 감독 데뷔전... 가능성 확인

2019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변화의 시기를 겪었던 한국 여자축구가 새 외국인 사령탑과 함께 달라진 모습으로 미래의 기대감을 키웠다.

10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중국과의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1차전은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여자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의 데뷔전이었다.

한국 여자 축구는 6월 여자 월드컵에서 3연패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쓴맛을 보며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

윤덕여 전 감독이 물러나고 최인철 감독이 차기 사령탑으로 낙점됐으나 '선수 폭행설'로 의혹을 치르며 얼마 못 가 사퇴하며 리더십 공백이 이어졌다. 10월 미국과의 친선경기는 감독대행 체제로 치르기도 했다.

신중한 인선 작업 끝에 유럽에서 경험이 풍부한 벨 감독이 낙점됐고, 이날 새 사령탑과 준비한 축구가 첫 선을 보였다.

결과는 득점 없이 0-0이었지만,

여자 대표팀에는 소독이 분명한 경기가였다.

2015년 8월 동아시아컵 맞대결 이후 4년여 동안 중국과의 4차례 맞대결에서 내리 졌던 한국은 팽팽하게 맞서며 중국전 4연패를 멈췄다.

공격진과 중원의 핵심인 지소연(첼시), 조소현(웨스트햄), 이금민(맨체스터 시티) 등 유럽과 선수들이 빠지고, 여러 구슬원에 변화를 준 상황에서 일궈낸 성과다.

짧은 패스 플레이와 공수 전환, 공격 전개도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속도 등에서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벨 감독은 경기 내내 손짓 등으로 '좁은 간격'을 요구했다.

마무리가 부족해 끝내 '한 골'이 나오진 않았지만, 후반에는 여러 차례 결정적인 골 기회를 만드는 등 가능성을 확인하기엔 충분했다.

특히 부임 때부터 끊임없이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강조했던 벨 감독의 주문이 부임 초반이던 배어든 모습이었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15일 대만과의 2차전에서 '벨 체제 첫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제10회 돌하르방컵 전국 초·중·고등학교 여자 축구대회에서 혼성부와 50대부 우승을 차지한 신제주축구회. 사진-제주시축구협회 제공

신제주축구회, 돌하르방컵 우승

제주시축구협회 주최

신제주축구회가 '제10회 돌하르방컵 전국 초·중·고등학교' 혼성부와 50대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제주시축구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이달 1일과 7, 8일 총 4일간 제주시 외 도1·2구장에서 진행됐다. 전국축

구동호인 40개 팀, 6000여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올해 대회에선 신제주축구회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다. 14개 팀이 출전한 혼성부와 26개 팀이 참가한 50대부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준우승은 혼성부 정읍축구회, 50대부 외도축구회가 차지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일마매 대상경주 오는 14일 개최

대회 당일 무료입장 광어 소비 촉진 행사

한국마사회 캣츠런파크 제주가 오는 14일 올해 마지막 대상경주인 제주일마매(1200m)를 연다. 총상금 1억 4000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선 2019년 최고의 제주마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다.

유력 우승후보는 결승 직전주루에 서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강점인 '월당봉'(8세 거세)이다. 2017-2018년 도지사배 대회에서 2연패를 거둔 '군자삼락'(5세 거세)의 선전 여부

도 관심사다. 여기에 브리더스컵 시니어 경주에서 승리한 '황용신화'(7세 거세)와 '수사대'(3세 거세), '고질라'(3세 거세) 등도 도전장을 내린다.

캣츠런파크 제주는 제주일마매 대상경주를 기념해 이날 경마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선착순 500명에게 제주광어로 만든 어묵 간식을 무료 제공하고, 관람대 주변에선 건강검진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산추첨을 통해 경마 참가 고객에게 300만원 상당 휴테크 안마의자 2대와 제주광어 대항에서 2연패를 거둔 '군자삼락'(5세 거세)의 선전 여부

손흥민 경기력, 유럽 17위... 호날두보다 위

FIFA 산하 연구기관 CIES 통계로 '월드클래스' 입증 프리미어리그 선수 가운데 7위, 토트넘에선 가장 높아

이제 누구나 '특급'이라 인정하는 손흥민(토트넘)의 '클래스'가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연구기관의 통계로도 입증됐다.

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는 10일(한국시간) 유럽 35개 프로축구 리그 소속 선수들의 경기력을 지표화한 '2019-2020시즌 인스탯 퍼포먼스 인덱스'를 발표하면서 손흥민에게 337점을 매겨 17위에 올렸다.

프랑스 리그1 최강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 사령관 마르코 베라티와 리그1 득점랭킹 3위를 달리는 뎀비파이(리옹)가 손흥민과 나란히 공동 17위에 자리했다.

손흥민 위로는 하나같이 빅리그에서 내로라하는 슈퍼스타들 뿐이다.

통산 6차례 발롱도르 수상에 빛나는 리오넬 메시(401점·바르셀로나)가 단연 1위에 오른 가운데 하킴 지예흐(377점·아약스), 킬리안 음바페(366점·PSG), 리야드 마레즈(362점·맨체스터시티) 등이 차례로 순위권을 형성했다.

손흥민의 바로 한 계단 위인 16위(341점)에는 맨체스터시티의 골잡이 라힘 스틸링이 자리했다.

특히, 유벤투스 이적 뒤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공동 25위(332점)로 손흥민보다 8계단이나 아래에 머물렀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수 중에서는 손흥민이 7위에 올랐다. 토트넘 선수 중에서는 손흥민의 순



지난 7일(현지시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번리와 홈경기에서 수비수 5명을 뚫어낸 뒤 최후 수비수까지 6명을 따돌리며 70m를 질주해 득점까지 성공한 손흥민. 연합뉴스

위가 가장 높았고, 수비수 토비 알데르바이르트(공동 12위·329점), 공격형 미드필더 뮐리 알리(공동 13위·328점)가 뒤를 이었다.

FIFA가 스위스 뇌샤텔대와 공동으로 설립한 CIES는 골과 도움 등

공격포인트뿐 아니라 소속팀의 성적, 포지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스탯 퍼포먼스 인덱스를 산출한다.

손흥민은 매 시즌 20골을 넘나드는 득점력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고공비행을 이끌어 왔다. 연합뉴스

'아이스버킷 챌린지' 영감 준 전 야구 선수 프레이즈 별세

2014년 전 세계를 달군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영감을 준 피트 프레이즈가 10일(한국시간) 숨을 거뒀다. 향년 34세.

AP통신은 프레이즈 가족이 낸 성명서를 인용해 고인이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보도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들을 돕

는 기부 캠페인으로 2014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얼음물을 뒤집어쓴 사람이 캠페인에 동참할 세 명을 지목하면 대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얼음물 샤워를 하거나 루게릭병 관련 기부금을 내야 하는 방식이다.

이 캠페인은 루게릭병으로 꿈을 접어야 했던 전 보스턴대 야구 선수인 프레이즈의 친구들이 그와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얼음물 샤워 동영상을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모인 기부금만 해도 2억2천만달러(약 2619억원)에 달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JIBS/SBS, EBS1. It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오늘의 운세 11월. A daily horoscope section for November, featur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Includes a small photo of a fortune teller and contact information.